광주·전남 폭우…침수 피해 잇따라

강진 토사 붕괴·광산구 하천 범람

일부 교통통제 … 항공편 결항도

8월의 마지막 휴일인 27일,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광산구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기고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일부 지역 국지성 폭우=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평균 강수량은 영암 165㎜, 광주 107.5㎜, 나주 111㎜, 무안 102㎜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비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 같은 지역에서도 강우량의 차이가 커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성 폭우로 변하기도 했다.

광주의 경우 평균 강우량이 107.5㎜였지만, 광산구 하남공단은 124㎜의 비가 내렸고, 광산구청 인근도 111㎜가 쏟아졌다.

전남지역 또한 영암군 미암면의 이날 강수량은 175.5㎜로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았고, 장흥군 유치면 159㎜, 신안군 압해면 압해도 135㎜ 등으로 지역별로 강우량 차이가 컸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광주지역에 발효됐던 호우경보와 대흑산도, 홍도를 제외한 전남 나머지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오후 5시에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은 "28일 광주와 전남지역은 기압골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침수 피해=이날 오후 1시40분께 강진군 작천면 829번 지방도 직선화 공사 현장에서 토사 100t가량이 쏟아져 차선 일부가 통제됐다. 영암군 서호면 엄길천 제방 40m 가량이 붕괴됐고,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소하천 제방 5m 가량이 유실됐다.

앞서 오전 10시께 광산구 하남공단 내부를 지나는 '풍영정천' 천변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화물차 등 차량 10대가 높아진 수위로 물에 잠겼고 공단 내 8번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됐다.

오전 7시께는 광산구 소촌동 대화아파트 부근 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겨 교통이 통제됐다. 또 광산구 용곡동 기곡마을 인근 용수로 4~5m 가량이 붕괴됐으며, 평동 산업단지 '원두천'도 범람해 주변 비닐하우스 10동(4천평)과 임곡동 연동마을 주변 도로가 침수됐다.

◇항공기 결항=갑작스런 비로 항공기도 결항됐다. 이날 오전 7시 광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OR1302편이 집중 호우로 발이 묶이는 등 이날 광주공항을 통해 이·착륙하는 항공편 4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철도나 버스는 정상 운행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물에 잠긴 車 2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풍영정천'. 천변 주차장에 세워둔 화물차 등 10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 물에 잠기자 시민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일일강수량

27일 오후7시 현재	단위 ㎜
영암 미암	175.5
장흥 유치	159.0
지리산 성삼재	141.5
신안 압해도	135.0
무안 몽탄	132.5
고흥 나로도	131.0
보성	118.5
광주	107.5
영광 낙월도	102.0
영암 무안	102.0
영광 염산	101.5
목포	99.0

■ 집중호우 왜?

한랭전선의 영향

광주와 전남지역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는 기상청이 당초 예상한 강우량(20~80㎜)을 훨씬 넘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기압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달한 상태로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한반도 서쪽에서 다가오는 한랭전선을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보통 온난전선에 걸친 기압골은 넓은 지역에 일정한 비를 뿌리지만, 한랭전선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는 특성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천둥·번개가 많았던 것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대기가 크게 불안정해서였다. 이 같은 한랭전선의 특성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비의 양이 크게 다르는 등 강수 편차가 컸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주언 서구청장 무혐의

검찰 "명예훼손 의도 없다"

광주 서구는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주언 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 구청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은 다소 부풀려지기는 했으나 허위사실은 아니었고 명예훼손의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19일 한 지역방송국 주최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전 구청장은 열린우리당 김종식(당시 구청장) 후보에게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광주 5개 구청 중 최하위이고, 광주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하위로 나타났다"고 주장, 김 후보의 반발을 샀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40대 여성 성인게임장서 '칼부림'

쌍나팔

○…성인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을 하던 40대 여성이 자신이 예약을 한 게임기에서 다른 손님이 돈을 딴 것에 격분,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철창행.

○…여수경찰은 27일 성인게임장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여·43·여수시 문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0분께 여수시 문수동 신천지 성인게임장에서 이 게임장 종업원 김모(여·23)씨와 자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게임장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어깨 등을 3차례 찔렀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8일부터 이 성인게임장에서 200여만원을 탕진한 정씨는 이날도 40여만원을 잃은 뒤 돈이 떨어지자 코인(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4천원을 게임기에 남겨 놓고 "다시 오겠으니 자리를 손대지 말라"면서 7시간여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다른 손님이 그 게임기에서 80여만원을 땄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조업 중 낙뢰맞아 추락 50대

동료 선원이 구조 극적 소생

민어(民魚)를 잡던 50대 선원이 조업 중 낙뢰에 맞아 바다로 추락했지만 신속히 해경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27일 오전 7시50분께 신안군 임자도 서쪽 3마일 해상에서 목포선적 민어잡이 유자망 '제3 어곡'호(7.83t·선장 안승렬) 선원 박모(57·목포시 죽교동)씨가 갑판에서 동료선원 4명과 함께 그물 작업을 하다 낙뢰에 맞아 바다로 빠졌다.

선원들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상에서 쇠로 만들어진 그물 걷어올리는 기계를 잡고 있던 박씨가 낙뢰에 맞아 바다로 튕겨 나갔다"면서 "곧바로 건져 올려 목포해경에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사고 직후 정신을 잃고 맥박이 희미한 상태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산소호흡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펼치자 의식이 돌아왔다. 박씨는 현재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박씨가 바다에 빠지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폐렴 증세가 올 가능성이 있고 심장과 뇌도 낙뢰로 손상됐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께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에서 최모(여·61)씨가 낙뢰에 맞아 숨져 있는 것을 주민 박모(6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낙뢰사고?

5분이내 응급조치 따라 생사 결정

'낙뢰사'(落雷死)는 낙뢰가 사람이 지니고 있던 금붙이나 인근의 나무와 건물 등을 통해 인체에 흘러들면서 발생하는 사고다. 낙뢰의 순간 최고 온도는 3만도며, 전류 값은 2만A(암페어)에 달한다. 이 같은 고압 전류는 호흡이나 중추신경마비·심장장애·화상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목숨을 건져도 시신경 위축이나 백내장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는 '폭풍자료'(Storm Data)를 통해 낙뢰에 맞아 사망할 확률이 240만 분의 1(100만 명 당 0.41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뢰 사고는 일반 감전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매우 높다면서, 사고 직후 5분 이내에 얼마나 신속히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하는가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기상청의 '낙뢰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담양·장성·화순 등 광주권에서 발생한 낙뢰는 총 9천704회로, 하루 평균 26.6회 꼴이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아내·애인 음란사진 인터넷 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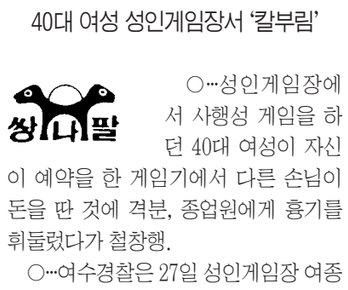
대학 겸임교수 등 적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회원들이 제공한 음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강모(29)씨 등 회원 41명과 이 사이트의 해킹을 시도한 민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이 사이트를 개설해 30여만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배우자나 애인의 음란 사진을 올리는 코너를 운영해 6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권모(34·모 대학 겸임교수)씨 등 회원들은 배우자 또는 애인과 가진 성관계 사진, 나체 사진 8천여건을 사이트에 올리고 한 번 퍼갈 때마다 50~150원씩 받아 모두 6천여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사진을 올린 회원 중에는 대학 겸임교수인 권씨 외에도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간부, 영화 시나리오 작가, 대학생인 군수 아들, 미국 모협회 검사관, 중국인 사업가 등이 포함됐고 주부 등 여성도 3명이 끼어 있었다. 사진작가가 모델을 기용해 사진을 찍어 올린 경우도 있었다.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은 대학생과 주부부터 교사, 공무원, 간호사, 성매매 여성, 미술학원장까지 다양했다. 일부 회원은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아내임을 보여 주려고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부부 간 교환 성행위(스와핑)를 시도하거나 여성 여러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연합뉴스